

새 책

▶천사를 만나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배은희 지음)=위탁가정에 관한 에세이다. 생후 11개월 된 막내 아이를 위탁해 7년째 키우고 있는 저자는 위탁가정에 관한 편견과 오해를 풀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썼다. 저자는 “들어가는 말”에서 “위탁가족이 아니었다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이 특별하고도 평범한 일상이 내 삶 안에서 감사하다”고 전한다. 늘. 1만5000원.



▶입가에 어둠이 새겨질 때 (김미양 지음)=요리사 꿈을 향해 태어나고 자란 제주를 벗어나 서른을 넘긴 어느 날, 가족을 닮아 있는 얼굴을 보면서 그토록 벗어나고 싶던 세계가 자신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저자는 추억을 요리하는 사람이 되어 밥 대신 글을 지었다. 책에는 그녀를 위로해 주었던 ‘따스하고 보드라우며 애뜻한’ 음식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두두. 1만3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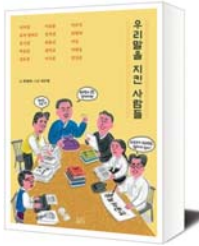
▶당신이라는 책, 너라는 세계 (박진희 지음)=평생 ‘읽고 쓰며’ 살아온 저자는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스무살의 자신에게 또 다른 삶을 열어준 것은 ‘피뢰침’이라는 소설이었다고 회고한다. 저자는 책 속 다채로운 세상과 그 세상을 닮은 모습을 한 이웃들을 만나며, 과거와 현재의 ‘나’를 발견하고 미래의 ‘나’를 꿈꾼다. 앤의서재. 1만4500원.



▶도서관 민주주의 (현진권 지음)=저자는 도서관을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학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해본다. 좋은 도서관, 다양한 도서관이 경쟁하듯 늘어나는 그 본질에 대한 해답을 담아내며, 도서관과 정치의 ‘불가분 관계’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살림. 1만4000원.



▶우리말을 지킨 사람들 (곽영미 지음)=우리말 사전 ‘말모이’ ‘큰사전’ 편찬에 힘쓴 인물들과 한글 보급 운동에 참여한 인물들, 우리말을 지키고 다듬고 가르치기를 정착시키는데 애쓴 인물 15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한글이 어떻게 지금까지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유산으로 남게 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 습수는책공장. 1만3000원.



▶용기의 맛·아무렇지 않을 준비가 되었어 (윤아 지음)·병원의 밥·미움의 마음 (정의석 지음)=세미플론의 ‘핑 시리즈’ 11·12권이 동시 출간됐다. ‘용기의 맛’에서 저자는 가족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지나온 한 시절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내놓는다. ‘병원의 밥’은 음식을 중심으로 둔 병원에서 단상이 모여있다. 세미플론. 각 1만1200원. 오른지기자 eioh@ihalla.com



# GDP가 말해주지 않는 좋은 삶의 조건

## 제이슨 히켈의 ‘적을수록 풍요롭다’

성장주의 생명세계 파괴 무엇을 확대, 축소할 것인가

매년 발생하는 초대형 태풍의 숫자는 1980년대 이후 두 배가 되었고, 2003년 유럽을 강타한 폭염은 단 며칠 만에 7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대체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녹고 있는 빙하는 유럽 남부와 이라크, 시리아, 중동의 많은 지역에서 극심한 가뭄과 사막화를 부르고 지역 전체가 농업에 부적당한 곳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주요 식량 생산 지역도 영향을 받게 된다. 자본주의하에서 세계 GDP가 적어도 매해 2~3% 성장하는 동안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고 쓰레기를 쏟아내면서 생명세계에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나 우리 존재 간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잊었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국제불평등 연구소 방문 선임연구원이자 바로

셀로나차지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 교수인 제이슨 히켈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탈성장이라는 답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저작 중 국내에 처음 번역 소개되는 ‘적을수록 풍요롭다’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다.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000달러에 달하는 고소득 국가가 된 한국인들에게 저자는 “늘랄만한 성공 스토리”의 “이면”을 들여다보라고 했다. GDP는 가격으로 측정되는 상품 생산을 측정하는 지표와 사회적 결과들 사이에는 직접적·인과적인 관계가 없다. 생산력이 큰데도 왜 인구의 15%는 빈곤선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경제를 자본축적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생태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재조직할 때 좋은 삶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대중교통, 재생에너지, 저렴한 공공 주택 등 경제의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확대되어야 하고 SUV, 호화 주택,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된 소고기, 패스트 패션, 광고, 군비 등 어떤 부분들이 사회적 필요성이 적으며 적극적으로 축소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탈성장이라는 에너지와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줄임으로써 경제가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공정한 방식으로 생명세계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그는 변화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경제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민정희 옮김. 창비. 2만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마음 아픈 이들 공감·지지하는 사회 꿈꾸며

## 청소년들의 고백 ‘우리의 상처는 솔직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른다. 감염병 시국 장기화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마음이 편찮지 않은 것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여전히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하는 냉담한 태도와 멸시를 마주하게 된다.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와 존중이 결여된 이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낸 이들이 있다. 멘탈헬스코리아 피어 스페셜리스트 팀이 펴낸 ‘우리의 상처는 솔직하다’가 그것으로 “아픔을 딛고 일어난 청소년들의 삶과 싶다는 고백”으로 채워졌다.

취급당하던 청소년들이 있다.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를 의지박약과 같은 개인적 심리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는 문제임에도 청소년들을 고통 앞에 내버려둔 채 혼자 감당하도록 외면해왔다. 공동 저자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사연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은 것은 정신 건강 문제를 다루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단순히 곱씹고 회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자신만의 강점으로 바꿨다. 가장 큰 위로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또래의 고통을 공감하고 지지해준다.



이 책에는 정신과 치료실과 상담실, 학교 안에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 ‘자해하는 애’ ‘문제아’로

을 바라보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시들어가는 한 송이의 꽃에 물을 주고, 추위에 떠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챙겨주자. 그 누구도 당신이 숲을 살리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스트레스 받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사소하더라도 가까운 누군가에게, 또 본인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작지만 단단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어떨까?” 마음의 숲. 1만5000원. 전선희기자

## 이 책 제일 김석범 한글소설집 ‘혼백’ 제주사람들의 항쟁 전통 속 4·3 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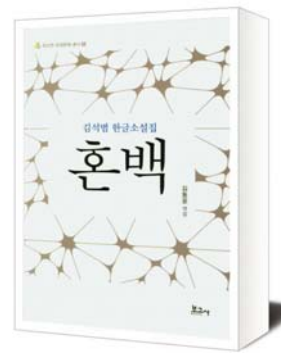
재일작가 김석범 문학에 대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주로 한국어로 번역된 일본어소설이 중심이었다. 소설집 ‘까마귀의 죽음’, 대하소설 ‘화산도’가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한글소설들은 간단한 언급 정도에 그쳤다. 이 같은 현실 속에 4·3문학연구자인 김동운 제주대 교수는 김석범 문학에서 1960년대 초·중반에 발표된 한글소설의 위상에 주목했다. 김석범의 문학세계를 더욱 폭넓게 조명하는 계기가 우리문학 역사 더 풍성해하게 만든다고 봤다. 그가 김석범 한글소설집 ‘혼백’을 엮은 배경이다.



재일작가 김석범. 미완의 한글소설 ‘화산도’에서 제주사람들의 항쟁 전통을 강조했다.

소설집에 실린 작품은 ‘뽕 사냥’(1961), ‘혼백’(1962), ‘어느 한 부두에서’(1964) 등 세 편의 단편소설과 미완의 장편 연재소설 ‘화산도’(1965~67)다. 소설 뒤에는 연구 논문 ‘김석범 한글소설의 양상과 의의’를 실었다. ‘뽕 사냥’은 엄격히 말하면 200자 원고지 약 31장 분량의 콩트다. 1950년대 제주도의 봄을 배경으로 통역관 양, 미군 장교를 등장시켜 인간사

의 만행을 드러낸다. “무리 죽음을 당한 고향 사람”이 일본으로 밀항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려지는 ‘혼백’은 어머니의 죽음과 귀국(복수) 사업을 접목한 소설로 4·3항쟁에서 추구했던 완전한 통일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남도 북도 선택할 수 없다는 작가의 의지가 담겼다. ‘어느 한 부두에서’는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 드나드는 한국 배를 맞이하게 되면서 겪는 사건을 다루며 잠정적인 평화세상을 구현해낸다.



한글소설 ‘화산도’는 ‘까마귀의 죽음’에서 대하 ‘화산도’로 가는 중간단계의 작업이다. 역사 속에서 전개된 제주사람들의 항쟁 전통을 강조했다 제주도의 민요와 언어, 풍속 등을 통해 제주 공동체가 외세에 의해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교수는 “1960년대 제주 소설의 회소성”을 들며 “이 소설들이 한글로 된 작품이라는 점은 제주문학으로서 매우 소중한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그는 “비록 일본에서 발표된 했지만 주된 독자가 재일조선인이었음을 감안하면 제주문학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고 그 가치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2만1000원. 전선희기자

**수축상**  
CONGRATULATIONS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고영남**  
(명성사 대표)

우리나라 인쇄문화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명성사 임·직원일동**

**수축상**  
CONGRATULATIONS  
**해양수산부장관상**




**홍봉근**  
(분회 지도위원)  
(미래해양기술 제주지사장)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 업무에 기여한 공로로 해양수산부장관상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양홍씨 제주도 청년회**  
회장 홍상기 외 회원일동

**임용상**  
CONGRATULATIONS  
**판사**



**김희숙**  
시무: 김덕문 · 시모: 현무순

판사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김덕문(시아버지)을 사랑하는 선배 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비트’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0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